

‘더 코리아시아 포럼 2019’ (한국일보 개최)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공동번영의 신시대를 여는 ‘더 코리아시아 포럼 2019’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일보 승명호 회장님, 코리아타임즈 이병언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 황교안 대표님, 손학규 대표님, 정동영 대표님, 김영주 회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연설을 해 주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과 참가자분들의 뜨거운 토론과 혜안을 기대하며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번영의 신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세아는 ‘더 코리아시아 포럼 2019’의 토론 주제처럼 아세안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세안은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경제침체와 자국 이익 우선주의의 여파로 인해 침체와 갈등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아세안은 경제공동체로서의 협력 모델을 구체화할 때입니다. 당면한 세계의 도전에 응전하기 위한 한·아세안 경제공동체 구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략적 동반자로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할 때 당면한 세계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세안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세계속의 중견국가

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세안 시대를 개척하는 중견국가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는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도전을 물리칠 수 있는 슬기로운 대안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한·아세안 수교 30년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이 한·아세안 공동 번영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